

1000원 벌어서 1048원 이자비용으로

지역 상장사 이자감당도 못했다

기업당 연평균 63억4000만원 ... 광주신세계 '0' 무차입 경영 유일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이 이자도 감당 못할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밀지는 장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부채가 워낙 많은 탓에 이자비용이 크게 상승한 탓이다.

2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소장 김정원)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14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이자보상배율은 0.95배로 전년 동기 0.17배보다 0.78배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이자를 감당할 능

력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배율이 여전히 1미만이어서 이자비용에도 못미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전체(560사) 이자보상배율은 4.41배였다.

결과적으로 이자배율 0.95배를 기록한 광주·전남 14개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1000원을 남겨 이자비용으로 1048원을 지출한 셈이 됐다.

실제 14개사의 1분기 총 이자비용은 887억원으로 작년 동기 647억원에 비해 37.16% 증가했다. 1사 평균 이자비용은 연간 무려 63억4000만원에 달

했다.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은 작년 112억원에서 1분기 846억원으로 무려 734억원(657.34%) 증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4개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전국 평균(4.41배)을 넘긴 회사는 부국철강, DSR제강 등 4개사 뿐이었다.

이자보상배율 1위인 부국철강으로 33억3000만원의 영업이익 가운데 2900만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 이자보상배율이 무려 114.18배에 달해 재무 건전성이 양호했다.

이자 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는 셀렌(-1.49배), 대유 신소재(0.81배),

▲이자보상배율 =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일 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다는 뜻이다.

로케트전기(0.73배), 금호타이어(0.71배), 금호산업(0.49배) 순이었다.

반면, 이자비용이 '0'인 무차입 회사는 광주신세계가 유일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소상공인 창업 성공률 높인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2012년까지 1000억 규모로

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창업 교육 프로그램인 '성공창업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연간 7000명에서 내년까지 2만명으로 확대하

기로 했다.

음식점이나 도·소매업 등 경쟁이 많은 업종은 교육을 줄이고 출판과 영상, 예술, 스포츠 등 신규 서비스업 관련 분야에선 교육을 늘려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쓰는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12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가맹 시장이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20년까지 10대 선도기술 발굴"

황창규 연구개발기획단장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 황창규 단장은 24일 "2020년까지 세계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10대 선도기술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황 단장은 이날 정부 과학청사에서 상근 투자관리자(MD) 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5대 부문별 비전과 발전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해 '남버린'이 아니라 '올리원(Only One)'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획단은 2020년까지 세계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우리가 산업 추종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2020 비전'을 선보일 것"이라며 "10대 선도기술을 우선 발굴하고, 세계 1위 사업을 적어도 10개 육성해 융복합화가 산업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단장은 주력산업 분야 비전으로는 '융·복합화를 통한 토털 솔루션 구현'을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조선·항공·화학·섬유는 세계 5위 기술강국에 오르게 할 것"이라며 "마켓 풀(Market Pull) 방식의 R&D 전략을 도입하고, 개별 사업 모델이 아닌 관련 기술을 융복합한 '토털 솔루션' 사업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송림점: (062) 227-9970
 익산점: (063) 851-2422

SINCE 1988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믿을만한 100% 방수성!!

방수제 방수제는 가정용 및 공업용

목재, 지아실, 바닥, 주차장, 옥상 등 방수용 요하는 곳

방수제를 칠하면 방수효과가 확실합니다

특히 방수제는 방수제나 방수제에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장속바다장어

맛있는 장어 요리

장속바다장어

062-383-1110

■ 키워드 경제 韓銀은 통화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한국은행은 통화공급과 흐름을 통제하는 '금융의 컨트롤 타워'다. 공개시장 조작·여수신·지급준비금 정책 등을 통해 시장에서 돈의 양과 흐름 등을 조절한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에서 매매해 단기 시장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한국은행이 국공채를 사들이면 그 대금으로 지급된 돈이 시장에서 유통돼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 반대면 돈의 양이 줄어든다.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면 시장금리가 오르고, 그 반대면 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수신 정책의 핵심인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 즉 시장 실효금리의 수준과 통화량 등을 조정하려는 정책금리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5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2.0%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싸다. 은행이 쓴 이자로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어 자연스레 실제 금리가 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들이 결정한다. 금융위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상승세라고 판단할 때 자금을 흡수해 경기를 식히려고 금리 인상 등을 결의한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다.

'지급 준비금 정책'은 은행에 예금액의 일정비율, 즉 지급준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해 돈의 양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光銀 서머 환전·송금페스티벌

8월까지 경품 등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여름방학과 해외여행 시즌을 맞아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머(SUMMER) 환전·송금 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 기간 동안 미화 300달러(36만3900원)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을 추첨으로 선별, 1등 3명에게 각각 백화점상품권(50만원), 2등 9명에게 고급자전거를 선물한다. 3등 30명에게는 각각 문화상품권(5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42명의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또 광주은행에서 외화환전, 해외송금, 여행자수표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금액에 따라 최고 70%까지 환율을 우대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벤처·중기대상 주식시장 설명회 27일 김대중센터

한국거래소와 한국에탁결제원은 27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제도 및 주식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방법, 주식업무에 대한 사례별·주제별 강연이 진행된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벤처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2-369-4733.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김정원 소장은 "유망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경영에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